

기도

1. 하나님의 뜻과 이름으로 축복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눔

1.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2. 서로를 축복할 때 일어난 생명과 변화의 역사를 나눠주세요.

신앙

언약

구약성경에는 세 가지의 언약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양쪽이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언약(삼상 18:3-4), 유력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맺는 언약(겔 17:13-14),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등이다. 이 중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피로 맺은 은혜로운 약속이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맺으신 일방적 언약이다. 때문에 이 언약에서 사람은 오로지 수혜자가 된다.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된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눅22:20). 우리는 새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행10:43, 롬11:27) 죄악이 기억되지 않으며 구원을 받는다(사43:25, 요5:24, 요일1:9).

구역 공과

2023년 5월 7일

축복하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



축복하라

민수기 6장 22-27절 (찬564장, 570장)

하나님께서서는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축복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깨닫고, 모든 복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축복의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22-26절).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22-23절).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축복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첫째, 여호와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축복입니다(24절). 본문의 ‘복’은 히브리어 ‘베레크’로써,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보호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받으라고 축복해야 합니다.

둘째, 여호와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축복입니다(25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의 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 아담,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을 통해 언약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죄를 시작으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속해서 깨뜨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고, 결국 그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끊임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처럼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 아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복은 이것을 깨달아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의 언약의 빛을 깨닫고 그 은혜안에 살도록 축복해야 합니다.

셋째, 여호와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축복입니다(26절).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직접 대면하시고 간섭하심으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셔서 우리의 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적인 복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인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를 따라가면 우리에게 평강이 임합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십니다(빌4:7).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영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간섭을 따라가며 그 평강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간섭이 임하고, 그 간섭을 통해 생명의 변화와 평강이 임할 것을 축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축복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27절).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27절). 우리는 서로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축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복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생명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더라도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맡기며 축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축복할 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맺 음 말

그러므로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빛을 깨닫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간섭하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할 때 생명과 변화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